

성공 위한 질주, 1초도 쪼개 썼다

“비록 짧은 6년의 군 생활이었지만 1분 1초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침없이 달려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전역 이후 단 한 번도 일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군생활이 성공의 자양분이 된 셈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국방창업기술진흥원(이하 국진원) 권세환(50·사진) 이사장은 학사11기 출신으로, 2012년 11월 초 3대 이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거침없는 사업추진으로 국진원에 혁신의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 혁신의 바람 원천은 지난 6년간의 군복무를 통해 배우고 깨우치면서 터득한 질주 본능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88년 7월 임관(청주대학교)해 94년 7월 전역 때까지 주변에서 ‘독종’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공부를 단 한번도 놓은 적이 없다고 권 이사장은 털어놓는다.

군 생활 때 취득한 자격증이 무려 10여 개. 이 정도면 군생활이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공학박사 출신답게 이 계통에서 말 수 있는 자격증은 모두 갖춘 권 이사장이다.

“경상도(경북 예천) 강촌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어릴 적부터 많았습니다. 그러한 본능이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질주 본능을 키운 것 같습니다.”

능력이 출중하다고나 할까.

이사장으로 오기 전의 이력도 매우 화려하다.

전역 직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1년 6개월 여간 병원신세를 진 뒤(지금도 몸 구석 구석에 철심이 박혀 있음) 96년 2월 육사 전산소에 입사(군무원)해 99년까지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업의 꿈을 키웠다. 성인이 된 뒤부터 꿈인 사업가로의 첫발을 인터넷 사업으로 정했기에 나름대로의 구상을 구체화해 갔으며 결심을 굳히고 육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가 예상밖으로 심해 결국 사업가로의 꿈을 접어야 했다.

재주 많은 사람은 쉴 틈이 없는 법.

가족이 권 이사장 몰래 경찰공제회에 이력서를 냈고 덜컥 붙어버린 것. 그러나 하는 일이 영 적성에 맞지 않아 단 10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러다 우연히 국회사무처에서 사무직원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응시해 잠시 공무원 생활(5개월)도 했다.

사업가로의 꿈은 포기했지만 이후 선택한 직장에서 일종의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 추

년째 하던 2009년 8월, 당시 겸임 교수로 있던 경기 화성시의 장안대학교에서 ‘산업기술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센터장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고 주저없이 수락, 2011년까지 대학교에서 산업공학 분야를 연구하며 후진 양성에 매진했다.

학사11기 출신 성공적 사회진출 6년 군복무 인생 성공의 자양분 “군생활은 자기계발 절호의 기회”

진으로 한때 접었던 사업가로서의 야망을 이루고 달콤한 열매를 맛봤다.

바로 2000년 8월 군인공제회 C&C에 입사해 사업가로서의 본능을 마음껏 발휘해 사업장에서 최연소 팀장을 맡는 등 고속승진을 했던 것.

그가 벌인 사업은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에서부터 ‘나라사랑카드’ ‘국방전자카드’ ‘국방맞춤형 복지’ 등 생각하고 실천에 옮긴 사업마다 커다란 주목을 받으며 짜릿한 쾌감을 안겨줬다. ‘군생활 사이버 학위 과정’과 병사들을 위한 ‘e러닝’도 모두 권 이사장의 작품이다.

“군인공제회에서 원없이 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초고속 승진도 했고요. 그러다 문득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두루뭉술하게 살지 못하고 모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이 너무 억척스럽게 사는 삶을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들 보기와는 달리 많은 반성과 후회도 적잖게 했습니다.”

폭주기관차와 같은 군인공제회의 삶을 9

이후 육사 근무 당시 친분관계가 있던 김철환 전 기품원장(국진원 초대 이사장)으로부터 국진원 이사장직을 권유받고 3대 이사장으로 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패를 모르고 성공만 거듭한 그의 삶에 군은 늘 마음의 고향과 같다.

그래서 지금의 성공을 가져다 준 발판이 군생활이었고, 군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고 지인들에게 주저없이 털어놓는 권 이사장이다.

“군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은 재취업에 몰두하지만 50%에 못 미칩니다. 경쟁력 있는 취·창업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특별히 귀농을 꿈꾸는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터를 잡은 뒤 창업을 편하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거의 안정을 찾은 뒤 재취업과 창업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권 이사장은 “장교건 부사관이건 병사이건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회가 참 많다. 군 생활은 자기계발 절호의 기회로 마음만 먹으면 안 될 일이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후배 장병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글·사진=유호상 기자
hosang61@dema.mil.kr
■ 편집=김영숙 기자

▶ 국진원은
비영리 사단법인 국방창업기술진흥원은 국내외 첨단 선진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전문가를 발굴 육성해 새로운 개념의 국방사업화를 추진,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방획득·개발·조달 관련 기술정보 등을 지원하며 민·군의 기술교차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국군복지단
MND Welfare Agency

대한민국 수호자 우리국군

스마트폰으로

국군복지단 복지시설을 예약하세요!!

모바일 예약 서비스 개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 웹에 접속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군복지단 검색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 주소창에 **m.welfare.mil.kr**를 입력하세요.

※ 모바일 앱은 **Android 버전**에서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